

서노송예술촌, 유네스코 인증 도전

전주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 프로젝트 인증 신청 예정

전주시가 공권력이 아닌 예술의 힘으로 성매매 집결지에서 문화예술마을로 만들고 있는 서노송예술촌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발전을 위한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인증에 도전한다. 시는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2019년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 프로젝트 인증제에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ESD 공식 프로젝트 인증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교육적 헌신과 노력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을 핵심으로 한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는 그간 국내 성매매집결지 정비가 주로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로 행해졌던 것과는 달리, 행정과 시민단체 등이 힘을 모아 문화예술을 통해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이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시는 이러한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를 국

내뿐만 아니라 세계에 널리 알려 문화재생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유네스코 인증에 도전하게 됐다. 이를 위해, 시는 인권·문화·도시재생 관련 전문가와 전주문화재단 등 유관기관의 자문을 받아 오는 12일까지 인증심사 자료를 작성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종 승인 여부는 오는 6월 말 확정될 예정으로, 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ESD 인증을 획득한 이후에는 유네스코 국제공모심사에도 도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지난 2011년부터 한국에서 실천되고 있는 다양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사례를 발굴·인증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한국형 ESD모델을 개발해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위원회는 지난해 인증된 11개 사업을 포

함해 현재까지 국내 96개 사업을 인증했으며, 현재까지 국제 인증 받은 국내 사례는 없다. 전주시 사회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가 선미촌의 점진적 개발을 통해 문화재생을 이끌어 내고 있다"면서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인증을 신청하는 것 만으로도 전주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기회를 만드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는 오는 2020년까지 총 74억원이 투입돼 선미촌을 포함한 서노송동 일대(11만㎡)의 골목경관정비, 도로정비(권상도로, 물왕말2·3길), 커뮤니티공간 및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 주민공동체 육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프로젝트가 추진된 이후 서노송예술촌에 일반음식점들이 생겨나고 상설문화예술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송호철 기자



전통문화전당과 예원예술대학이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개발과 확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통문화의 체계적인 교육 기반 마련

전통문화전당·예원예술대, 연구개발 '맞손'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예원예술대학이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개발과 확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두 기관은 1일 전당 4층 소회의실에서 김선태 원장을 비롯해 김삼수 예원예술대 총장과 차중순 대학원장, 신문정 교학처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생활전통문화 확산에 대한 정보 수시 공유 ▲전통문화 연구개발 및 콘텐츠 개발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지도 및 지원 ▲전통문화의 참인재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전주한지 응용 콘텐츠 개발과 연구

과제 공동 발굴·협력 ▲상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 세미나 공동 개최 및 참여 등 크게 5가지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삼수 총장은 "전주시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예술기관과 예원예술대가 공동의 프로젝트를 추진해 두 기관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태 원장은 "전통문화의 체계적인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훌륭한 전통문화 인재를 발굴·육성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뉴스



고창군이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통합브랜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역 농업·예술단체가 모인 토론회가 열렸다.

"각계각층 의견수렴으로 천년가는 지역 대표 브랜드 만들 것"

고창군, 농업·예술단체 토론회 열려

고창군(유기상 군수)이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통합브랜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역 농업·예술단체가 모인 토론회가 열렸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군청 상황실에서 지역 농업·예술계 관계자들이 모여 고창을 대표하는 통합브랜드 개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고창군은 '황토배기 나 '선연' 등의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업체별로 다른 브랜드를 사용해 고창의 인지도와 경쟁력에서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민선 7기 고창군은 유기상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고창 농산물과 문화예술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통합브랜드를 개발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농업단체 관계자는 "통합브랜드에 대한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들

을 수 있어 상당히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통합브랜드에 대한 군민들의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 의견을 모아 백년, 천년가는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통합브랜드 개발로 소비자들이 고창에서 나온 것이라면 믿고 살 수 있도록 인지도를 높여 가겠다"며 "한반도 첫수도 고창의 지역 대표 브랜드 개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작곡가 겸 지휘자 최재혁 국내 무대 데뷔, 부천필 지휘

작곡가 겸 지휘자 최재혁(25)이 국내 무대에 데뷔한다. 4일 부천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지는 부천필하모니오케스트라 해설음악회 '클래식 음악! 문학에 취하다' 포디엄에 오른다. 미국 줄리아드 음악원 작곡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최재혁은 2017년 제72회 스위스 제네바국제콩쿠르에서 클라리넷 작품 '녹턴 3번'으로 작곡 부문 우승을 차지하며 주목 받았다. 최근에는 지휘자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스위스 루체른 콘서트홀 KKL에서 열린 슈토크하우젠의 '그루벤' 공연에서 거장 지휘자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최재혁을 비롯, 지휘자 3명이 한 무대에서 오케스트라 3팀을 지휘한 대곡이다. 영국 런던심포니오케스트라 사이먼 래를 음악감독, 영국 작곡가 덩컨 워드와 함께했다. 이번 부천시향 무대에서 최재혁은 교태의



'파우스트'를 모티브로 삼은 곡들을 들려준다. 구노의 '파우스트 왈츠', 바그너의 '파우스트 서곡' 등을 지휘한다. 최재혁은 "그동안 한국에서의 지휘 공연은 내 친구들과 함께하는 앙상블 블랭크와의 현대음악이 전부였는데 이렇게 전통적인 프로그램으로 부천필과 한국의 관객을 만날 생각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뉴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